

연예뉴스 HOT 3

송강호, 제74회 칸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



송강호

배우 송강호가 7월6일 막을 여는 제74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10일 영화계에 따르면 송강호는 최근 칸 국제영화제 측으로부터 심사위원을 제안 받아 수락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한국영화 관계자가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이 된 것은 신상옥 감독(1994년), 이창동 감독(2009년), 배우 전도연(2014년), 박찬욱 감독(2017년)에 이어 5번째다. 그는 주연작 '비상선언'으로 이번 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전원일기, MBC 창사 60주년 특집다큐 방송



'전원일기'의 한 장면

1980년부터 2002년까지 22년간 방송한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가 다큐멘터리로 돌아온다. 10일 MBC는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 플렉스-전원일기 2021'을 18일 오후 8시50분 방송한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에는 드라마 주연 최불암·김혜자부터 손일이 역 류덕환까지 30여 출연진이 모두 등장한다. 특히 김 회장 역 최불암은 최장 기간 집필한 김정수 작가를 20년 만에 만나고, 김 회장의 세 며느리인 고두심·박순천·조하나는 시할머니를 연기한 고 정애란의 묘소를 찾는다.

대마초 흡연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구속



정일훈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는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하면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한국영화 개봉 러시' 빅시즌을 잡아라

'모가디슈' '여고괴담'...기대작들 여름사냥

100억 대작 '모가디슈'와 '인질' '베테랑' 선보인 외유내강 작품 17일 '여고괴담' 23일 '발신제한' 외화들 흥행세 이어갈 지 주목



17일 개봉작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를 시작으로 '발신제한', '모가디슈'(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등 한국영화 기대작이 여름시즌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극장가와 영화계 안팎의 기대감도 커진다. 사진제공 | kin·CJ ENM·롯데엔터테인먼트

'한국영화 올해 농사, 여름시즌에 달렸다.'

극장가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시즌을 앞두고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잇따라 개봉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겨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극장가와 영화계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여름시즌이 하반기 시장의 성패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한국영화 기대작들의 활약을 내심 응원하는 분위기다. 또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한국영화 개봉작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영화의 제작진도 구체적인 개봉 일정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 '모가디슈'부터 '모교'까지

10일 투자배급사 NEW는 황정민 주연 '인질'을 올해 여름 개봉한다고 밝혔다. 8일 롯데엔터테인먼트도 김윤석·조인성의 '모가디슈'를 여름시즌에 선보인다고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17일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를 비

롯데 23일 '발신제한'이 잇따라 관객을 만난다. 또 30일에는 스틸러 영화 '미드나이트'가 극장과 함께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각 작품은 그동안 영화계 안팎의 기대를 모아왔다. '모가디슈'처럼 제작비 100억원 이상의 대작도 이번 여름시즌 개봉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영화계와 극장가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모가디슈'와 '인질'이 '베테랑' 등 흥행작을 선보여온 제작사 외유내강의

작품이라는 점도 시선을 모은다.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는 10일 "만들새에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 여름시장을 내다보는 배급사들의 의지도 컸다"고 밝혔다.

● "여름시장, 작년보다 더욱 커질 것"

한국영화 기대작들의 잇단 여름시장 개봉은 그만큼 각 제작진의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다. '모가디슈'의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유진아 홍보팀장은 "개봉 시점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여름시장 폭넓

은 연령층의 관객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와 '캐시트릭' '퀵저링3:악마가 시켰다' 등 외화의 흥행세도 영향을 미쳤다. CJ CGV 황재현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신규 콘텐츠에 대한 관객의 갈증이 있음을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등 흥행이 확인시켰다"면서 "올해 여름시장은 지난해 '반도'가 380만 관객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10일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극장가의 노력도 또 다른 배경이 됐다. 강혜정 대표는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백신 접종 등 감염병 사태의 추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요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한국영화 개봉작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극장 관계자는 "제작비의 최대 50%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나왔다"면서 "영화 제작진의 제작비 회수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개봉작을 통해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또 다른 한국영화 기대작의 개봉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개콘', 가수들 앨범 홍보채널로 각광

(개그콘텐츠)

2PM 준호, 김해준과 '니곡내곡' 강승윤·선미 '뽕사이코러스' 출연

최근 김해준·황제성·양세찬 등 개그맨들의 콘텐츠가 가수들 사이에서 새로운 앨범 홍보 무대로 각광받고 있다. 토크쇼 등 다른 예능프로그램보다 신곡을 소개하는 시간은 적은 대신 신선한 재미로 화제물을 할 수 있어 가수들에게는 이색적인 무대가 되고 있다.

28일 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는 그룹 2PM의 멤버 준호는 10일 김해준과 함께 한 컬래버레이션 영상 '니곡내곡'을 공개

했다. 영상에는 '부캐'(제2의 캐릭터)인 '카페 사장 최준'으로 변신한 김해준이 준호와 2PM의 히트곡 '우리 집'을 열창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해준의 느긋한 발성에 애써 웃음을 참는 준호의 모습이 시청 포인트다. 개그 유튜브 계정 '피식대학'으로 공개된 영상은 20여 시간 만에 83만뷰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조회수를 늘리고 있다. 앞서 다비치·10cm·정승환·악동뮤지션 이수현 등도 '니곡내곡' 코너를 다녀갔다. 가수 풀키이 '너를 만나'를 부른 영상은 무려 388만뷰까지 치솟았다.

개그맨 황제성·양세찬이 tvN 개그프로



그룹 2PM의 준호(왼쪽)가 개그맨 김해준과 협한 유튜브 콘텐츠 '니곡내곡'의 한 장면.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그램 '코미디빅리그'에서 선보이는 '사이코러스' 코너도 인기다. 두 사람은 각각 코러스 가수 '황태'와 '양미리'로 나서 초대 가수들의 노래에 우스꽝스러운 화음을 넣어 웃음을 자아낸다. 사이니·오마이걸·브레이브걸스 등 아이돌그룹은 물론 김경호·유

리상자 등 베테랑 가수들까지 총출동했다.

이들은 코너를 확장시킨 유튜브 콘텐츠 '뽕사이코러스'를 통해서도 가수들과 적극적으로 협업 중이다. 위너 강승윤·선미·우주소녀 더 블랙 등이 출연해 신곡을 홍보했다. 콘텐츠가 입소문을 타면서 '출연하고 싶다'며 제작진에 먼저 연락해오는 가수들도 늘어가고 있다.

'뽕사이코러스'를 연출하는 정무원 PD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연이 어려워진 상황에 노래를 선보이는 동시에 재미까지 더할 수 있어 가수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개그 무대와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상 '날 것'의 웃음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용유형 : 과채유로 • 원산지 : 양배추·브로콜리(양배추:국산), 사과·브로콜리(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함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